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 열풍의 문제점

USMLE Fever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민주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의사들의 삶은 우리가 가난하고 못살던 시절에도 비교적 여유있고 부유한 계층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의 상당수는 미국행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로, 하나는 자신은 사회 경제적으로 보장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회의 수준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상당수는 의사

라는 직업이 학문적 직업(learned profession)이었기에 보다 발달된 학문의 세계에서 좋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으로 인하여 내국인의 의과대학 졸업생의 부족과 국내 의료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여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진입이 장려되었고 절차도 쉬웠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생도 의례히 의과대학 졸업 시점에는 미국에서 전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ECFMG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 시험에 응시했고, 시험의 난이도도 낮았으며, 영어 시험도 쉬워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그러나 월남전이 종식되고 미국의대 졸업자의 수가 증가



안 덕 선

고려의대 성형외과 / 의학교육학과

되면서 시험도 어려워졌고 취업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시험의 이름도 ECFMG에서 FMGEMS, VQE 등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VQE(Visa Qualifying Examination)의 합격률은 통상 10%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미국의대 졸업생과 동일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e Examination)로 단일화 되었고 외국인에게는 CSA

(Clinical Skill Assessment) 시험이 추가되었다. 이는 6개 대륙의 의과대학을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 의과대학과의 실기 교육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수행평가를 개발한 것이다.

1970~2000년까지 한동안 미국의사시험을 보는 지원자 수는 크게 줄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 내의 취업난과 시험의 복잡성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그런대로 계속되는 데 반하여 의사들을 둘러싼 의료 환경과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하락을 거듭했다. 최근 국가적 분배정책은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근자에 외국 이민 또는 외국에서의 전공의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증가하였고, 강남에는 이들을 위한 전문 학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에도 동호인회가 결성되어 상부상조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많은 수의 우리나라 졸업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상당수는 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살았었다. 특정 의과대학의 경우 어떤 해는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가 비행기를 전세 내어 한번에 단체로 갈 정도로 당시 많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했고 또 가기도 쉬웠다. 당시에는 언어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자라는 의사를 우선적으로 미국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요구하는 영어 점수도 매우 낮아서 웬만하면 다 통과했었으나, 그 후 월남전이 종결되면서 미국 내 의사수가 적정선을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한결 더 까다로워졌다. 토플 영어 성적이 높아지고 이제는 아예 실기시험(CSA)에서 영어와 의사 소통술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도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준비와 학습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시험들을 전문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기술도 같이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이 어렵게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다. 국가 발전 지표상 사회 경제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의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professionalism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지원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의과대학의 인기도 여전하다. 당연히 고착된 사회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의사로서의 대우와 직업 만족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로의 탈출이나 이동일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전체 의사의 25% 정도가 외국 의과대학 출신이다. 이들은 일단 미국에 진입하여 전공의 과정을 성

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미국의대 졸업생들과 함께 섞여서 다음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또 한번의 경쟁을 하게 된다. 그 중 유능한 사람은 결국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의과대학이나 의료계의 아주 높은 위치까지 진출하고 있다. 미국은 전혀 손해 볼 이유가 없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고 있는 셈이고, 게다가 기본 의학교육은 출신국에서 부담하는 셈이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악순환이기도 하다.

외국으로 진출하는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러한 두뇌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따져보면 외국으로 진출하였던 이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 선진 문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미국에 알리기도 하며 의료를 둘러싼 국제적인 중심 가치 형성에 동참하게 했다. 즉 우리의 의학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미국사회에 적응하여 미국사회 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이민 사회의 중심적인 리더가 되기도 했다. 전문직의 특성과 의무로써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속 사회를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국제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교류, 특히 미국으로의 진출은 과거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미국행을 택하는 그 첫번째 이유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뒷맛을 씹을 하게 한다. 한동안 우리 삶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의사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의약분업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와 의료 환경에 염증을 느낀 우수한 두뇌들이 그들의 신천지인 미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말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